

내일 강원건축문화제 개막

도건축사회(회장:최성두·사진)가 개최하는 '2016 강원건축문화제'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강릉시청에서 열린다. 올해는 강원건축문화상을 비롯해 강연회, 랜드마크 공모전, 회원건축사진작품전, 학생작품전, 어린이 집그리기대회, 어린이 건축모형만들기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개막식은 18일 오후 3시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성두 회장은 "올해 건축문화제는 현재와 미래의 건축문화를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축을 문화로 새롭게 인식하는 자리로 일반인은 물론 학생들의 건축물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강원건축 미래를 밝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

이승복이 주는 메시지를 다시금 불러들이고자 한다. 1968년 12월 어느 날 9살 소년 이승복은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의 희생자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무엇보다 살해

당하기 직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외침은 대한민국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도 누구나 기억하는 일일 것이다.

이승복의 외침이 과연 사실이었나, 가공한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시시비비가 무려 17년간에 걸친 지리한 법정다툼 끝에 '사실'로 결정된 것은 다행스러우면

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만 하다.

이 과정에서 이승복 관련 선양사업이 후순위로 밀리고, 결국 우리의 기억 한편으로 밀려난 것 같은 것은 두고두고 뼈아픈 후회로 남는다.

지난 13일 평창 이승복기념관에서는 평화통일염원 및 이승복 추모 2016 전국남녀웅변대회가 열려 많은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열린 웅변대회를 두고 하필 과거 속 인물 이승복이나, 다시 반공이나 하는 등의 저항도 만만찮았다. 그럼에도 이승복을 다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 소년이 전한 평화의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강원포럼

박용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 부의장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신념에서다.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백제 최후의 보루인 계백의 결사대를 꺾은 것은 15살 어린 나이의 화랑 관창이었다. 초개와 같은 목숨을 버린 관창의 용기가 신라의 용맹을 깨웠고, 결국 삼국통일의 대업을 성사시켰다. 관창처럼 가문의 배경이 뛰어나

진부면(현재 용평면) 노동리다.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아마도 그날은 이승복의 생일잔치가 한창일 것이다. 기쁨도 잠시, 소총과 대검으로 무장한 무장공비에 의해 평온했던 집안 분

위기는 순식간에 이수리장이 되고, 공포의 도가니로 변한다. 어머니와 어린 동생이 살해되는 순간, 승복이 외친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결국 승복도 대검에 의해 입이 찢어지는 처참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다. 봄에 서리가 앉은 것만 같이 떨렸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재난이나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찾아

이승복 정신 다시 세워야 하는 이유

지도 않고, 그렇다고 평소의 삶이 잘 알려지지 않은 어느 시골의 9살 소년 이승복이 전하는 메시지 역시 흩어진 국론을 하나로 결집하고, 평화와 자유의 메시지로 남는다.

이날 연단에 선 어린이부터 성인 참가자 연사들의 외침에 가슴이 뭉클했고, 울컥했다. 여전히 북한은 핵무장을 앞세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술수를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복이 전해주는 무게감 있는 메시지가 어린 연사들의 작은 입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잠시 눈을 감아 본다. 머릿속에 그린 배경은 평장군

가 체험함으로써 반성과 교훈을 얻는 여행을 다크투어리즘이라 한다. 그저 즐거운 기억과 추억만을 찾아가는 여행보다 시대의 아픔을 기억하고 또 올바르게 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명한 가을 날씨에 온 가족이 한번쯤 이승복의 평화정신을 찾는 여행길에 나서 보는 것은 어떨까.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이승복이 남겨준 메시지의 진중함을 알려주고, 자유의 숭고한 가치를 일깨워주기 딱 좋은 날씨가 아닌가.

외부 기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건축 최신 트렌드 구경 오세요

주택·건설·건축박람회

2016 강원 **eco+** 홈페어

GANGWON ECO HOME FAIR

일 시 2016년 10월 26일(수)~10월 29일(토)

장 소 춘천시 석사동 호반체육관 및 특설행사장

개 막 식 2016. 10. 26(수) 오후 2시 호반체육관 야외 특설행사장
관람료 : 무료

참가업종

- 건축 자재
- 가구 및 인테리어
- 전원주택
- 주택 정보
- 생활가전 및 디지털 홈
- 조경 및 공공시설
- 욕실 및 주방
- 냉난방 기기
- 창호재
- 조명 및 전기 시설
- 건설장비 및 건설안전 보호구
- 건설 신기술



▶문의 : 강원에코홈페어 홈페이지(<http://ecohomefair.kr>)

☎ 070-7098-8388

▶주최 : 강원건설단체연합회 | 江原日報社

▶후원 : 강원도·춘천시·17개 시군



건설업계, 지자체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대체로 환영'

공동수급체 시공실적 합산 '만족감' 기술개발투자 높은 배점은 '아쉬움'

건설업계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대체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사가 드물고, 기술개발 투자비율 배점이 현실보다 여전히 높은 점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 지난 6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공동수급체의 최근 3년 또는 5년간 업종별 실적을 평가할 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시공실적을 합산하도록 했다. 또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시설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시공경험 평가에 적용하는 실적계수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에 적용할 종합공사 업종 등급 비율을 완화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시공실적 부족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건설업체들이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시설공사 입찰에 고용 창출과 임금 체불에 관한 신인도 평가 항목을 신설해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에 대해 최대 0.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신인도는 해당 건설사가 적어 아쉬움을 남겼다.

실제로 2015년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포함된 건설기업은 현대엔지니어링과 신세계건설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획재정부에 앞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시설공사의 기술능력 평가에서 기술개발 투자비율 등급과 배점을 완화한 점도 건설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평균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0.13%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를 충족하는 건설사가 적은 현실이 반영돼 다행스럽다"며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 항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가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용부 장관이 최근 3년간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에 따라 최소 0.2점에서 최대 1점의 감점을 부여하도록 한 것도 아쉽다는 평가다.

다른 관계자는 "감점 항목은 앞으로 도래하는 사항에 적용해야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며 "더욱이 하도급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것도 임금 체불로 처분받고 소명 절차도 충분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